

# 이야기지도안

## 교육목표

**제목** 지혜로운 선덕여왕

**나이** 어린이 (6~9세)

**주제** • **목표** :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선덕여왕의 지혜로움에 대해 배운다.  
• **주제** : 지혜

**핵심어** 선덕여왕, 신라, 모란꽃, 꽃, 여왕, 여자, 여성, 공주, 왕, 임금님

**한국문화** • **목표** : 우리나라의 우수한 역사인 신라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요소** : 신라

**한국어** • **목표** : 선덕여왕의 이야기를 듣고 꽃의 특징을 말한다.  
• **단어** : 예쁘다, 향, 색깔  
• **표현** : 모란꽃은 예뻐어요.  
향이 나지 않아요.  
색깔이 다양해요.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지혜로운 선덕여왕’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왕’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큰 사람을 생각했나요? 나라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똑똑하고 슬기로워야 해요. 백성들은 왕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혜로운 왕은 나라를 힘 있게 하고 백성을 행복하게 해요. 오늘은 슬기롭고 현명한 선덕여왕의 이야기예요. 선덕여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야기 들어 볼까요?



##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지혜로운 선덕여왕’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옛날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신라에는 키가 무척 크고 힘도 센 임금님이 살았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돌계단을 올랐더니 한꺼번에 세 개가 부러진 적도 있었어요. 임금님은 백성들을 위해 부지런히 일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자꾸만 흘러 임금님도 많이 늙었어요.

“이거 큰일이군! 누가 나를 대신해 임금이 되면 좋단 말인가?”

사실 임금님은 딸만 셋이 있었어요. 신라시대에는 남자만 임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임금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매일매일 고민했어요.

“첫째 딸이 지혜로우니 임금으로 딱이야!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겠어!”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누구를 임금으로 삼을지 물어보았어요.

“임금님께서서는 아들이 없으시니 다른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첫째 공주님이 말했어요.

“제가 아버님의 뒤를 이어 다음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 말에 다들 웅성웅성했어요.

“안 됩니다. 여자는 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자가 임금이 된 적이 없습니다.”



## 이야기 들려주기

신하들의 반대에도 공주님은 꾀꾀하게 맞서 말했어요.  
 “여자라고 왜 임금을 못합니까? 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공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웃 나라의 임금님이 선물을 보냈어요.  
 모란꽃 그림과 씨앗이었어요. 그림 속 모란은 빨간색, 자주색, 흰색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화사하고 예뻐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란꽃 그림을 보내다니. 하하! 정말 멋진  
 선물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림처럼 예쁘고 향기로운 꽃이 피겠군요. 하하하!”

그때,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던 첫째 공주님이 말했어요.

“이 꽃은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을 거예요.”

모두 깜짝 놀랐어요. 임금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하하하하! 네가 그것을 어찌 아느냐?”

“그림 속에 나비가 없기 때문이에요. 꽃에 향기가 있다면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요.”

“네 말이 맞는지 씨앗을 심어보면 알겠구나!”

임금님은 모란꽃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꽃이 필 때까지 정성껏  
 가꾸었지요. 정말 그림 속 꽃처럼 모란이 예쁘게 피었어요. 빨간색,  
 자주색, 흰색, 그 색깔도 다양했어요.



## 이야기 들려주기

하지만 하나같이 향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림처럼 주변에 나비가 모여들지도 않았지요.

“하하하하! 정말 향기가 없구나! 하하하하! 그림만 보고도 알다니 정말 지혜롭구나!”

“현명한 첫째 공주님이 임금님이 되면 좋겠어!”

신하들은 지혜로운 첫째 공주님을 칭찬했어요.

마침내 첫째 공주님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임금님이 되었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님이에요. 선덕여왕님은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선덕여왕님은 이웃 나라인 백제와 고구려가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 군대도 튼튼하게 준비했어요. 하늘의 별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첨성대도 만들었지요. 첨성대 덕분에 날씨를 미리 알 수 있게 된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황룡사에 9층이나 되는 큰 나무 탑도 만들었어요. 신라를 지켜주는 보물이었지요.

선덕여왕님은 평생 백성과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 덕분에 백성들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선덕여왕님은 여자라도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다는 걸 멋지게 보여주었지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선덕여왕님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야기에 나온 모란꽃은 어떤 꽃이었나요? 그래요. 모란꽃은 예뻐어요. 빨간색, 자주색, 흰색으로 색깔이 다양했어요. 하지만 향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비가 날아오지 않았지요.

여러분, 선덕여왕님은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었나요?

맞아요. 신라예요.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 신라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신라의 여러 왕이 묻혀있는 커다란 무덤들도 있고요.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첨성대도 있어요. 두 개의 커다란 돌탑으로 유명한 불국사와 돌을 쌓아 굴을 만든 석굴암도 있지요. 신라의 독특한 문화가 궁금하다면 경주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신라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지혜로운 선덕여왕’ 이야기를 정리해 보아요.

신라시대에는 여자는 임금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첫째 공주님은 임금님이 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대하는 신하들과 싸우지 않고, 신하들에게 모란꽃 그림으로 자신의 지혜로움을 보여주었어요. 신하들은 현명한 첫째 공주님이 임금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선덕여왕님처럼 지혜롭게 생활해 보아요. 고민이 생기면 ‘이럴 때 선덕여왕님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